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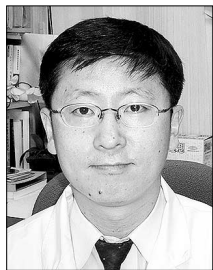
일찍이 부처님은 욕심을 바탕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악업의 인연으로 몇 배의 대가를 받는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최근 들어 광우병, 조류독감, 사스 같은 해로운 전염병으로 온 지구가 아단이다. 발생 지역은 미미하지만 그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이 증폭되어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니, 경기 위축과 함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어 살심(殺心)이 따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질병은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를 남용하는 등 종(種)의 천성에 따른 삶에 인간이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나 가금류를 더 많이 양산하기 위한 욕심으로 좁은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먹이 역시 순리에 어긋나게 감염된 양의 똥가루를 사료에 배합하여 소에게 먹인 결과인 것이다.

이런 행위의 근저에는 다른 생물들의 종(種)을 배려하는 마음이 배제된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깔려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 없었던 조류독감이나 광우병과 같은 괴질은 인간의 이기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과보인 셈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하늘과 땅의 수승화강(水升火降) 기운에 의하여 삼라만상이



불자 세상보기

구병수
동국대 한의학 교수

육바라밀 면역법

생긴 것이고, 단지 그 중 하나가 인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생명질서를 수없이 무너뜨려 왔다.

병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치료하는(治)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理) 것이다. 리(理)는 육체에 물결로 인하여 새겨진 자연스러운 무늬를 뜻하는 데,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서로 공존 화해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바이러스를 없애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약제를 개발하면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겨난다.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

남기 위해서 더 강력한 독성을 만들어 내고, 또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천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요 의지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한 원망과 반발심이 순리를 거스르고, 이같은 행위가 누적 되어 새로운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정기(正氣)를 보(補)하면 자연히 사기(邪氣)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흔한 말로 면역이 증가하면 병이 잘 걸리지 않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 질병을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은 면역을 기르는 방법이지만, 육바라밀(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반야)을 실천하는 일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시는 탐심을, 지계는 화내는 마음을, 인욕은 잘 내세우는 마음을 제거하니,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면 선정에 이르러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 나서 의심이 없는 반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인체의 정기가 강해지고 결국은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조류독감, 광우병 등과 같은 질병은 한 개인이나 한 국가만 주의한다고 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가 이같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동참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시봉하는 밝은 마음으로 삼라만상의 모두를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하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로 공생하는 대승적인 마음을 공유해 아만이 지금의 병리적 혼란에서 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천태종에서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을 시작하여, 통일, 환경 등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분야들에 대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한다. 열핏 생각하면 우리 불자들의 귀에 이미 익숙한 '불교의 사회화'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질 수 있고, 실제로 그 근본 정신에서야 다를 것이 없겠다. 그러나 이번 천태종의 움직임에는 '불교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우선 그 구호인 '나누며 하나되기'라는 말이 갖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불교의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을 바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 천태종의 구호는 우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나의 소유를 중생과 나누는 그러한 자비행을 통해 중생과 하나됨을 실현하겠다는 정신이 드러나 있다. 나눔의 실천을 통해 중생과 하나됨은 바로 자비행을 통해 하나됨의 큰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나누면 하나가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각 분야를 나누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준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요즘 불교계 NGO 등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방향설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누는 일은 그저 생각해가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극도로 분화되고 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사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전문가를 요구한다. 천태종의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의 방식은 이러한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것이다.

나의 소유를 중생과 함께 하는 일, 중생의 괴로움은 나누어 함께 지는 일, 이것은 불교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은 또한 수많은 중생을 불교 속으로 이끄는 최고의 포교수단이다. '불교의 사회화'를 통해 이러한 부끄러운 세월을 청산하는 데 온 불교계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천태종의 '나누며 하나되기'가 '주마가관'(走馬加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의 해박이 소식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라. 겨울 오고 봄 오니 해 바뀔 듯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학명 스님(鶴鳴, 1867~1929)

무상(無常)의 시간관으로 보자면 우리들이 하루, 한달, 한 해라고 말하는 분절적 시간 마디는 관념의 산물이다. 시간의 존재양태는 한 순간의 머무름도 불가능한 '흐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그것을 분별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기대어 부질없는 꿈꾸기를 그만두라고 말한다. 하지만 범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다. 자심삼십일에 그칠지라도 새해만 되면 저마다 '꿈의 궁전'을 세우기 마련이다.

사주(四柱)라는 것이 있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네 기둥으로 보고 각각의 간지 두 글자를 합쳐 평생 운명, 즉 팔자를 따진다. 이것이 고정불변은 아니어서, 10년 단위로 유통하는 것을 대운(大運)이라고 하고 1년 단위로 유통하는 것을 세운(歲運)이라고 한다.

사주가 불교의 오지랖 속으로 들어오면 사자(使者)가 된다. 연직(年直)·월직·일직·시직 사자가 되는 것이다. 시간의 인격화라 볼 수 있는 이 사자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란 존재의 유한성을 극적으로 상징한다. '날마다 좋은 날'이란 '날마다 죽기 좋은 날'에 다른 아니다.

일년만년(一念萬年)이라 했다. 한 생각이 만년의 세월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왕경에 이르기를 '참나에 9백 생명이 있다'고 했다. 허구의 시간에 꿈을 가락하지 말고 다가오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전해주시는 해박이 소식이다.

■윤재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회보호법 폐지 마땅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편을 둔 독자. 남편은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았다. 지금은 형기를 모두 마치고 감호처분에 따라 청송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는 '징역형을 살고 난 상습범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감호는 헌법에 명시된 이 중처벌의 금지조항을 어긴 조치임에 분명하다. 실형을 살고 난 뒤, 또다시 감호소에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형벌과 보호감호는 이틀만 다를 뿐 실상은 똑같다"며, 그 예로 교도소 규칙과 보호감호소 규칙이 같은 점을 들고 있다.

현재 유럽에도 보호감호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의 보호감호제도는 삼청교육대 수용자들을 그대로 수감하면서 시작됐다. 청송감호소에는 1,600여명이 수감되어 있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정밀한 심사 없이 해마다 300여명이 보호감호 판결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 중 70%가 절도범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한 죄수를 수용하는 유럽의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죄를 짓고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지옥이요, 비양심적인 일을 하고 마음이 꺼림직 하면 반지옥이라고 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호감호라는 명분 아래 이중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보호법 개정을 위해 불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기대한다.

김정희(충북 추주)

모든 중생의 성불을 바라며

무상(無相)은 금강경에서 언급한 불가진리의 보고인 듯하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이 몸도 버려두고 가는 애착을 씀 마음도 무상에 있고, 이기고 지는 것 놓아두고 묵언으로 시비를 벗어나는 것 또한 여기에 있으니, 이른바 한가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섭수(攝受)하여 원만히 이어나가고 평등 속의 차별상과 이렇고 저러한 일들과 사람들 모두 긍정 속에 자비롭게 육도를 내 집삼아 도심(道心) 이어야 옳을 듯하다.

함께 탐마하던 도반들. 나름대로 하나의 봉우리를 차지한 듯해도 부처님의 허공 같은 마음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값지고 존귀한 일면에 불뉘어 있음이러니 진일보한 그 날이 있을 수 있겠는가.

평범하게 불교의 이론적인 얘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생활로 얘기하는 사람들. 비록 겉치레 도복(道服)은 아닐지라도 그 내면은 도의 외길 오롯하게 가는 것일 뿐, 서로 마음이 통하니 반갑고 기쁠 뿐이다. 국가는 중한 것. 스스로에 부끄럽지 않

도록 본심 지키고 깨끗하게, 또 겸허하게 살 수 있는 향마의 불세계를 기약하며 일없는 한가한 이로 남은 세월 산사에서 묵묵히 보낼 따름이구나. 모든 불연의 성불을 바란다.

광연 스님(지리산 토굴 수행)

스님들의 행정업무 옳은가?

부처님 말씀이 중생들을 이끌어 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단에서도 절의 재정을 스님들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승가(僧伽)·비구·비구니·우바이·우바세 사부대중으로 이뤄진 절은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찰의 재정이나 행정적인 업무는 재가불자들이 맡아 스님들이 수행과 중생제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과 기획, 집행은 재가불자가 맡고 추진 등의 형태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인사 기사를 읽으면서 스님들이 왜 중무행정을 맡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됐다. 스님들은 오직 수행을 통해 성불하여 중생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김종용(‘투데이뉴스’ 댓글)

'연대' 민영

심민섭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가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가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언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가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국내최대 오가피 재매자 성광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통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점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통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수신통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배게

02)447-5300